

안지오랩 자체개발 치주질환치료제 임상2상 승인

‘ALH-L1005’ 잇몸·치조골 분해 억제 국내 만성치주염 환자 117명대상 진행

코넥스 상장 바이오 벤처기업인 안지오랩은 자체 개발한 치주질환 치료제 ‘ALH-L1005’ (코드명 AL102-PD T)가 임상2상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지오랩의 만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ALH-L1005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임상2상 시험을 승인했다.

안지오랩의 ‘ALH-L1005’는 MMP 효소를 저해함으로써 만성치주염에 따른 잇몸과 치조골의 분해를 억제하여 치아 소실을 예방해 준다. 기존의 MMP 효소 저해제로 미국 FDA 승인 받은 유일한 치주질환치료제는 저용량의 항생제인데, ‘ALH-L1005’는 천연물의약품으로써 장기 반복투여 독성시험, 유전독성, 안전성약리 시험에서 고용량에서도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것

로 알려졌다.

이번 시험은 국내에서 만성치주염 환자 117명을 대상으로 3개 기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번 임상 시험 이후 기술이전도 추진할 계획이다.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주요 통계에 따르면 치은염 및 치주질환이 다발성 질병 2위를 차지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 환자는 2010년의 794만 명에서 2018년 1,580만 명으로 급증했다. 또한 치주질환은 악화될 경우 심장 질환, 뇌졸중 위험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안지오랩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천연물의약품 ‘ALS-L1023’을 가지고 습성환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상과 비알콜성지방간염(NA SH)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2a상을 각각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 삼출성 중이염 치료제 임상2a상 IND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 받는 등 적응증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세경 기자

삼바·셀트리온 K바이오 위상높인다

〈삼성바이오〉

JP 모건 헬스케어 2020

한미약품 이머징 트랙 발표 나서 JW중의 추가 기술제휴 사업 논의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행사에 참여해 글로벌 진출 확대를 노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다음 주 열리는 ‘JP 모건 헬스케어 2020’의 초청장을 받았다.

오는 13~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는 전 세계 45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가장 큰 행사다. 그동안 세계 주요 기업들이 이 행사를 통해 주요 투자 파트너를 찾고 인수합병, 기술수출 등 구체적인 성과를 거둬, 행사 참여 만으로도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삼성바이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메인 세션 발표자로 확정돼, 주요 행사장인 그랜드 볼룸 발표를 확정지었다. 지난해 콜로니얼룸에서 발표했던 셀트리온은 올해 그

랜드 볼룸 발표자로 선정되며, 글로벌 위상이 한단계 업그레이드 됐다는 평가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올해 새롭게 출시된 ‘렘시마SC’의 글로벌 출시 계획과 전략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는 4년 연속 메인 발표자로 그랜드 볼룸에 초청되면서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도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갖춘 바이오 위탁생산(CMO) 경쟁력을 전 세계에 알릴 계획이다. 다만,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로 김태한 사장이 발표자로 참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미약품, 유한양행 등 국내 주요 제약사들도 행사에 참여한다. 한미약품은 이머징 트랙의 발표자로 나서, 현재 개발 중인 오라솔과 톨론티스의 임상 데이터 등을 소개한다. LG화학은 항암제 등 신약후보물질의 임상 데이터와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유한양행 역시 레이저티닙 등 기술 이전으로 개발 중인 신약의 임상 데이터와 향후 임상 전략을 공개한다.

발표자로 참석하진 않지만, 개별 부

스를 설치하고 일대일 미팅을 통해 투자자와파트너사를 찾아나서는 기업들도 상당수다.

JW중외제약은 이번 콘퍼런스 참여해 자체 개발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JW1601)와 통풍치료제(URC101)의 추가 기술제휴 사업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의 적응증 확대 전략과 개발 현황을 처음 공개한다. 통풍치료제에 대한 선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기술이전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JW중외제약 이성열 대표는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투자 콘퍼런스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원천기술을 오픈 이노베이션 하는데 최적의 행사”라며 “JW1601과 URC102의 연이은 기술수출로 확인된 JW의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에이비엘바이오, 에이치엘비, 티움바이오, 압타바이오, 휴젤, 엔지켐생명과학, 바이오솔루션, 펩트론 등 국내 바이오 벤처들도 행사에 참석해 새로운 파트너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롯데호텔이 전국 16개 호텔에서 ‘2020 설 패키지&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롯데호텔

롯데호텔 설날 맞이 가심비 높은 패키지 선택

웃놀이 세트, 복주머니 등 제공

롯데호텔은 2020년 설 연휴를 맞아 설날 프로모션과 패키지 상품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국내 최대 호텔 체인답게 전국 16곳의 호텔에서 즐기는 다채로운 상품이 롯데호텔만의 강점이다.

시그니엘서울 ‘월드타워 스페셜’은 그랜드 디럭스룸 1박과 조식 2인 외에도 시그니엘서울에서 실외로 나가지 않고 이동이 가능한 롯데월드, 서울스카이 전망대, 아쿠아리움,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 사뭇대관 중 1곳의 티켓 2매를 함께 제공한다.

롯데호텔제주는 디럭스 테라스 오션룸과 2인 조식, 미니바 1회 무료 제공은 물론 락볼링장 2인 이용권을 포함한 ‘스테이케이션’ 패키지를 30만원부터 제공하며 온라인 예약 시 추가로 1만원이 할인된다.

호텔 내에 위치한 제주 지역 최대 실내 테마파크인 ‘플레이토피아’에서 여유로운 볼링을 만끽할 수 있다.

롯데호텔서울은 ‘채울 컬래버레이션’ 패키지를 선보인다. 슈퍼리움 1박과 전통 수공예 브랜드 ‘채울’의 도라지꽃 텀블러 1개, 9가지 차(茶)를 담은 ‘오설록’ 시크릿 티스토리 1박스로 구성된다.

나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수공예

텀블러와 국내 전통차 재료를 새롭게 블렌딩한 차에서 전통의 현대적 해석을 엿볼 수 있다.

롯데호텔월드는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투숙 가능한 ‘뉴 이어즈 그리팅’ 패키지를 18만5000원부터 선보인다. 이용 고객에게는 디럭스룸 1박과 함께 명절에 빠질 수 없는 웃놀이 1세트가 제공된다. 또한 설 패키지 투숙 객실당 복불복 복(福)주머니를 하나씩 증정하여 세시풍속인 세뱃돈을 대신한 호텔 상품권 1/2/3만원권의 랜덤 당첨 기회가 돌아간다.

롯데호텔울산은 디럭스룸 1박과 호텔상품권 5만원권(1박당 제공)으로 구성된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를 15만원부터 선보인다. 울산 유일의 5성급 호텔에서 가심비 높은 호캉스를 1월 17일부터 31일까지 즐길 수 있다. 투숙객은 지하 1층에 자리한 웰니스존의 스파와 볼링장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롯데호텔부산의 ‘2020 설날’ 패키지는 디럭스룸 1박과 2인 조식, 세계적인 코스메틱 브랜드 이솝의 바디오일을 묶어 판매한다.

롯데시티호텔과 L7호텔은 가성비가 돋보이는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를 선보인다. ‘해피 홀리데이’ 패키지는 객실 1박을 비롯해 롯데시네마 관람권 2매, 보드게임 ‘롯데호텔 월드트립’ 세트가 포함된다. /박인용 기자

국민 90% “C형간염 국가검진에 포함해야”

질병관리본부

일반인 C형간염 인지도 34%로 상승 C형간염 예방접종 불가 인지 42%

일반인 10명 중 9명, 의료인 10명 중 8명은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하는 데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 1000명과 내과계열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120명을 대상으로 C형간염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조사 결과는 질병에서 발행하는 ‘주간건강과 질병’ 최근호에

공개됐다.

일반인의 C형간염 인지도는 34%로 2009년 국립암센터 조사에서 1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그러나 A형간염(72.8%), B형간염(79.3%) 등 다른 간염에 비해서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질환을 인지하고 있더라도 C형간염의 증상(23.5%), 감염경로(29.2%), 치료법(19.8%) 등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특히 C형간염이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3%에 불과했다. C형간염은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예방접종이 불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42%만이 인지하고 있었다. 조기 발견이 어려운 C형간염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자 항체 검사를 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4%였다. C형간염 항체검사를 국가검진 항목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87.6%, 의료인의 78.3%가 긍정적이었다.

일본은 이런 인식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일상생활 중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 강화, 국가건강검진 항목 포함 검토 등 C형간염 조기 발견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저염식 고객에 딱!... 현대百, 특화 소금 굴비 세트

현대백화점이 이색 굴비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현대백화점은 올해 설 선물세트 판매 기간 프리미엄 소금으로 밑간한 ‘특화 소금 굴비’ 세트 4종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물량은 총 1200세트다. 이 선물세트는 현대백화점이 지난해 추석 명절 선물세트 판매 기간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것으로, 추석에만 준비된 물량(600세트)이 완판된 바 있다. 20cm 이상 10마리(총 중량 1.2kg)로 구성된 상품으로, 판매 가격은 25만원이다.

‘특화 소금 굴비’ 세트는 국내산 소금 3종(자염·죽염·해양심층수 소금)과 프랑스 계란도 소금으로 밑간을 해 특화한 상품이다. 이들 소금은 일반 천일염에 비해 최대 50배가 비싸지만, 고객에게 다양한 맛과 식감을 선보이기 위



특화 소금 굴비 세트를 소개하는 모델들 /연합뉴스

해 개발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보통 굴비는 참조기를 천일염에 절인 후 바닷바람과 햇볕에 말리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먼저 햇볕에 말린 갯벌흙을 바닷물로 걸러서 10시간 정도 가마솥에 끓여 거품을 계속 걷어내는 전통 방식으

로 만든 ‘자염(kg당 1만3000원) 굴비’는 감칠맛이 강하다. 신선 천일염을 대나무통에 넣고 황토가마에서 구워낸 ‘죽염(kg당 7500원)’으로 밑간을 한 굴비는 대나무 특유의 향이 굴비에 배 생선 비린내를 잡았다.

또한 ‘해양심층수 굴비’는 강원도 고성 연안에서 6km 떨어진 수심 605m에서 취수한 해양심층수를 안개 상태로 분해한 뒤, 열풍 건조로 수분을 증발시키는 방식으로 생산한 ‘해양심층수 소금(kg당 1만5500원)’을 사용해 짭짤이 기존 천일염 대비 덜해 저염식을 선호하는 고객이 먹기에 알맞다.

프랑스 계란도 소금(kg당 8000원)으로 밑간을 한 굴비는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나, 부드럽게 녹는 듯한 식감이 강하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